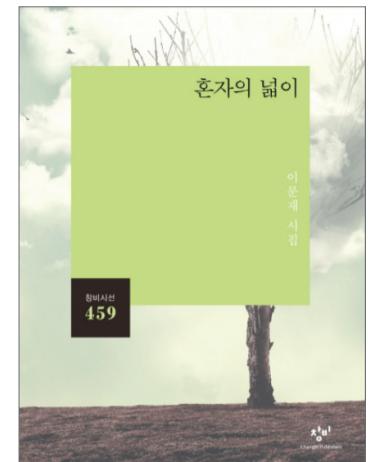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 ⑨ 이문재『혼자의 넓이』



문제가 많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사진=언스플래쉬)



이문재『혼자의 넓이』

시인 사유의 숙성된 흔적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를 거부하는 이문재의 시적 사유가 경유하거나 최종적으로 도달한 문학의 공간에는 다음과 같이 단호한 시적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배달된다. “모든 아버지가 아들딸의 미래를 끊임 없이 훔쳐온 것이다/청년의 미래를 보란 듯이 줄기차게 착복해온 것이다.”(『삼대』) 그러므로 이제라도 “미래에게 미래를”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이렇듯 이문재의 시집『혼자의 넓이』에는 평범한 생활세계의,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저 “거대한 근황”에서부터 생태환경을 위시한 전 지구적 현안들이 속속들이 접결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시는 현대 세계의 절망적 상황을 특유의 언어 감각과 독자적인 미학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예리하게 적시한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은유와 상징의 넉넉한 품과 형용모순을 앞세운 유쾌한 상상력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절망을 껴안은 그의 시가 종국에 희망의 노래로 변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기서 연원한다. 무엇보다도 이문재의 시는 미래를 위한, 미래에 위한, 미래의 “전환설계”를 꿈꾸기 때문이다. 혹, 어쩌면 이문재 시인 그 자신은 미래에의 선주(先走)를 통해 전환설계자의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 종이 팽팽팽/어서 모이자/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의 낡고 익숙한 사유가 아닌, “학교 종이 팽팽팽/어서 가보세/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네”(『전환 학교』)의 그 새롭고 낯선 ‘전환설계’ 말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한 개의 사족을 허용하기로 하자. 이문재의『혼자의 넓이』를 다 읽고 나니, 문득 독일 태생 철학자의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다름 아닌, “문제가 많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

어느 ‘전환설계’자가 꿈꾸는 미래

이 성 천
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

‘명백한(unequivocal)’ 인간의 책임을 재차 묻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명백하게 입증한다.

위기에 노출된 삶은 위태롭다. 그것은 차라리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은 삶의 위기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대세계의 절망적 상황은 절망하는 법을 잃어버린 데 있다. 지금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에 절망적이다.

이문재의 새 시집『혼자의 넓이』(창작과비평사, 2021)는 절망을 안고 간다.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문재는 걱정이 많은 시인이다. 농업 걱정, 공해 걱정, 교육 걱정, 도시와 사람, 하물며 지구 걱정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래서 그의 시집은 온통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다. 가령, “우리는 쉬지 않고 작아진다/감성이 이성보다 크지 않아서/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지 않아서/세계감이 세계관보다 크지 않아서/미래가 현재보다 크지 않아서”(『거대한 근황』)의 ‘우리’에 대한 진단과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자전

하는 까닭을 알겠다/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광욕하는 이유를 알겠다/피부병이 도져서 그려는 것이다/제 살갗에 둘러붙은 것들을 떼어버리려는 것이다/태양광의 힘으로 속독하려는 것이다”처럼 다소 엉뚱한 상상력은 그가 어느 정도의 ‘걱정주의자’인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땅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땅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자, 우리”(『지구의 말』)와 같은 ‘생각’의 제안에는 여지없이 시인의 걱정이 스며들고 있다.

이문재 시인이 걱정주의자라는 것, 그의 시가 걱정거리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다행스럽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단언컨대 시인 이란 ‘혼자’의 사유공간에서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 공동체의 고유성과 관계성을 진지하게 묻고 따지고 고민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문재가 7년 만에 새로운 걱정거리 목록을 지침하고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개의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세상의 형편이 더욱 더 어려워졌거나 혹은, 시인 “혼자의 넓이”가 보다 더 확장되었거나,

과연 시집의 곳곳에서는 우울하고 암담한 세계의 이야기가 간단 없이 흘러나온다. 우애와 환대의 미덕이 부재하는 허울뿐인 공동체, 산업공해와 기후 변화로 병들어가는 지구, 문명과 진보의 왜곡된 논리가 횡행하는 현실자본주의 일상,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곳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안쓰럽고 참담한 얼굴과 표정들.

이문재 시인의 걱정이 진지하면 서도 때로는 경쾌한 시적 제안으로 털바꿈하는 순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무지막지한 성장과 소비의 질주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 “지구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의 대목, “이야기를 바꿔야 미래가 달라진다”(『전환학교』) 그리고 “이야기를 흔들어보자”의 부분, “질문을 바꿔야/ 다른 답을 구할 수 있다”(『어제 죽었다면』)의 선언은 이 부근에서 들려오는 이문재 시와 산문의 다급한 제안이자 육성이다. 더하여 ‘오래된 미래’에의 고집스러운 잠행과 ‘처음을 위한 회상’의 집요한 시간들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대안을 찾아 “혼자의 넓이”를 가다듬어온